

언어의 ‘매개작용’ 범주 고찰: 프랑스어와 한국어 비교 연구* **

서 정 연

(서울여자대학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언어에서 포착되는 ‘증거성(évidentialité)’ 범주의 의미적 속성과 그 체계를 연구하기 위한 언어학적 토대연구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증거성 범주를 Desclés & Guentchéva(2000)의 ‘발화작용이론(la théorie de l’opération énonciative)’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는 프랑스어의 문법표지인 ‘조건법 현재시제’와 한국어의 문법표지인 ‘-더-’에 드러난 증거성 범주의 의미적 가치를 기술하고, 이 범주가 언어마다 다르게 발현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발화작용이론을 객관적 분석 기제로 이용해, 양 언어 간에 드러나는 증거성 범주를 매개작용으로 다시 정의하고, 시상 및 양태 범주와 구별되는 범주의 구별된 위상을 규명하였다. 또한, 해당 범주의 범언어적 체계와 보편적 의미 가치를 탐색하는 일반 언어학적 연구도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증거성’이라는 범언어적 현상을 발화작용의 체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설명해내었고, 본 연구의 결과는 응용언어학 등의 다양한 분야로 까지 확장되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마련하였다.

주제어 : 증거성 범주, 매개작용, 증거성 양태, 가추법, 한국어 회상시제 ‘-더-’, 프랑스 조건법 현재시제, 발화행위이론, 발화작용이론, 발화책임작용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 이 논문은 심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수정되었다. 졸고를 심사해 주시고 냉철한 학문적 지적으로 논문의 질을 높여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I. 서론

본 연구는 언어 유형론적(*la typologie linguistique*)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던¹⁾ 언어의 ‘증거성(*évidentialité*)²⁾’ 범주의 보편적 속성과 그 체계를 연구한다. 일반 언어학적 관점 하에서,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비교 연구를 진행한다. 화자가 진술의 근거가 되는 증거의 출처를 밝히고, 그 정보의 획득 경로까지 명시하는 언어적 표지를 ‘증거성’ 표지라고 하며(Willet 1988), 이러한 표지들이 한 언어에서 이루는 체계를 ‘증거성’ 체계라고 정의한다.

비교 언어학적 관점에서,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증거성 표지의 의미들을 파악하고, 그 의미적 속성을 규명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이는 해당 범주의 언어적 발현이 언어마다 어휘적, 문법적 그리고 담화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Plungian 2001:350). 따라서 본고는 선행이론의 연구를 통해, 범언어적 관점에서 제안된 증거성의 의미 값을 살펴보고(Willet 1988)), 한국어와 프랑스어에 드러난 증거성 범주의 언어학적 실현층위(문법적, 어휘적 그리고 담화적 층위)와 이 언어학적 표지들이 갖는 의미-화용론적(*sémantico-pragmatique*) 가치를 분석·기술하게 될 것이다. 특히, 범언어적 연구에서도 드러난 증거성 범주의 의미 값과 인식 양태 간에 갖는 중첩된 의미, 시상범주와의 관계 등을 한국어의 회상시제 ‘-더-’와 프랑스어의 ‘조건법 현재시제(*conditionnel au présent*)’를 통해 설명하고, 규명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시도는 맥락이나 언술(*énoncé*)의 어휘적 의미 값의 영향이 아닌, 증거성 문법 표지 자체가 갖는 의미적 가치의 안정성(*stabilité de valeur sémantique*)을 확보하기 위함이다(Dendale 1993:173). 이를 위해, 본고는 Bally(1965), Benveniste(1956), Culioli (1973)에서 제안된 ‘발화행위이론(*la théorie de l'énonciation*)’을 중심으로 언술의 유형을 구분한 Desclés & Guentchéva(2000)와 Desclés(2009)의 ‘발화작용이론(*la théorie de l'opération énonciative*)’을 분석 기제로 제안한다. 이러한 시도

1) Willet(1988), Dendale(1991,1993), Guentchéva(1996), Plungian(2001), Aikhenvald (2003) 등이 있음.

2) 이 용어는 Boas(1947)에서 처음 발견됨(정인아 2010:15).

는 프랑스어 ‘조건법 현재시제’ 형태소와 한국어의 회상시제 ‘-더-’가 가지는 증거성 범주의 위상을 객관적 기제를 통해 확고히 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증거성’이라는 범언어적 현상은 ‘매개작용(médiation)³⁾’으로 다시 정의되고, 발화작용의 체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설명될 것이다. 또한 본고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응용언어학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증거성 범주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양태 및 시제범주와의 관계 등을 선행이론의 연구를 통해 알아본다. 양태(modalité)와 증거성 범주의 정확한 범주적 개념을 정립한다(II.1). 이를 통해, 우리는 양태를 발화자가 정보에 대해 갖는 ‘태도(point de vue)’를 구현하는 양화적 기능(quantification)을 가진 연산자로(Kronning 2012), 증거성 범주를 화자가 자신이 진술하고 있는 ‘정보의 근거(source de l’information)’를 명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성된 추론적 사고를 재구성하는 매개작용의 연산자로 구별해 정의할 것이다. 더불어, 모든 화자의 언술은 자신만의 발화 시공간(référentiel énonciatif)내에서 획득된 정보를 유효화(validation)하는 작용(opération)의 결과물이라고 제안한 Culioli(1973)의 발화작용이론을 근거로 증거성 범주의 담화-화용론적 위상과 시상범주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것이다(Desclés 2009)(II.2). 다음에는, 앞서 살펴 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는 프랑스어의 ‘조건법 현재시제’와 한국어의 ‘-더-’의 의미 가치와 발화적 기능을 분석·표상해보고, 그 의미적 불변소(invariant sémantique)를 탐색해보고자 한다(III.1&III.2).

3) Guentchéva(1996:11)는 발화작용의 관점에서 이 용어를 제안함. 자세한 내용은 본고 Ⅲ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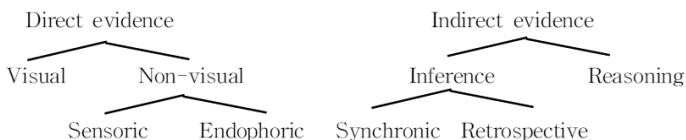
II. 선행이론 연구

1. 증거성 범주의 범언어적 특성

우선, 일반 언어학적 입장에서 증거성 범주에 대한 범언어적 특징을 살펴해보도록 하자. 선행이론에서 ‘증거성’의 의미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되었다.

- (i) ‘진술된 사건에 대한 정보의 근거’- Jakobson(1971:135),
- (ii) ‘화자가 자신의 단언(assertion)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를 가리키는 언어적 수단’ - Willet(1988:55),
- (iii) ‘명제 안에서 정보의 출처를 밝히는 것’ - Bybee(1985:184),
- (iv) ‘화자가 그의 정보의 출처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는 것과 관련된 의미범주 - Saeed(2009:144),
- (v) ‘문법화된 증거성 체계는 단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증거의 근원을 우선적으로 코드화함’- Givón(2001:326).

요약하자면, 위의 Givón(2001:326)의 언급대로, 증거성 범주란 담화 상황(situation discursive)에서 발화자가 상대발화자에게 자신의 언술이 어떤 근거에 의해 구성되었는지, 단언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행위를 일컫는 문법범주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아래 [그림 1]과 같이, Plungian (2001:353)는 증거성 범주의 언어적 표지를 ‘증거성’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였다.



[그림 1] 증거성 의미 값의 구분(Plungian 2001:353)

위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성의 의미 값은 그 정보의 출처가

화자의 직접적인 경험(direct evidence) 혹은 지각(perception)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뉜다. 다시 직접적인 경험은 시각적인 것(visual)과 그렇지 않은 것(non-visual)으로 나뉘고, 이는 다시 청각을 포함한 감각기관(sensoric)의 것인지 아니면 감각기관을 명시하지 않지만 직접적인 지각에 의한 것(endophoric)인지에 따라 세분화된다. 후자의 경우는 언어에 따라서, 발화자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직접 목격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경우이다(Plungian 2001:352). 다음에는 증거성의 출처가 화자의 간접적인 지각(indirect evidence)에 기인한 경우이다. 이 경우도 다시 둘로 구분된다. 우선, 상황 자체는 아니지만 이 상황을 추론(inférence)할 수 있는 다른 상황을 직접적으로 지각한 경우, 또는 발화자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상황을 추정(reasoning)한 경우이다. 이러한 [그림 1]의 증거성 범주의 의미는 개별 언어에 따라, 어휘적으로 혹은 문법적인 표지로 가시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 의미 값이 가시적으로 언어에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Plungian 2001:350). 예를 들어, 다음 예문(1)의 투유카(Tuyuca)어의 경우는, 직접적 증거성과 간접적 증거성이 모두 형태론적 표지로 실현된다(Palmer(1986), Dendale & Coltier(2003:106)에서 재인용). 화자가 '누군가 축구를 했다'라는 정보를 말하고자 할 때, 이 정보의 획득 경로를 세분화해, 직접 목격할 사실인지((1a), (1b)), 아니면 어떤 근거를 통해 추론한 정보인지(1c),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전달해 준 것인지(1d)를 각각 네 개의 형태소, 'wi', 'ti', 'yi' 그리고 'yig'로 구별해 표현하고 있다.

- (1) a. *díiga apé-wi*
 (직접 목격함, 나는 그가 축구하는 것을 봤음)
- b. *díiga apé-ti*
 (직접 들었음, 나는 그가 축구하는 소리를 들었음)
- c. *díiga apé-yi*
 (나는 어떤 단서를 통해, 그가 축구한 것으로 짐작했음, 예를 들어, 운동화에 묻은 흙)
- d. *díiga apé-yig*
 (나는 누군가 알려줘서 그가 축구한 것을 알았음)

마찬가지로, 다음 예문 (2)의 한국어의 경우에 위의 [그림 1]의 증거성의 의미 값은 문법적 표지로 표상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 (2) a. 비가 오더라.
 b. 비가 **왔**더라.
 c. 비가 오**겠**다.
 d. 비가 온**대**.

<표 1> 예문 (2)에 나타난 증거 유형

문장	정보 획득의 경로	증거성 표지
(2a)	직접적 경험	-더-
(2b)	직접적 지각을 바탕으로 추론	-었더-
(2c)	간접 경험으로 추정	-겠-
(2d)	간접 경험으로 추정	-대-

위 예문(2)에서 정보 획득의 경로를 중심으로 보면, 과거에 직접 목격한 상황을 전하는 (2a)와 달리, (2b)는 ‘비가 오다’의 상황을 추론할 수 있는 증거를 직접적으로 지각한 후 추론을 통해 전달하거나⁴⁾, 간접 경험을 통해 추정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각각 보인다((2c), (2d)).⁵⁾

반면에, 다음 프랑스어 문장 (3)에서는 위의 투유카어나 한국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앞서 [그림 1]에서 살펴본 증거성의 의미는 어휘적 표지((3a), (3b))를 통해 나타나거나 문법적 표지(3c)를 통해 포착된다.

- (3) a. *J'ai vu de mes propres yeux comment les pilotes anglais ont descendu six appareils argentins*(Dendale 1993:166).
 내가 직접 어떻게 영국비행사들이 아르헨티나 비행기를 추락시켰는지 두 눈으로 목격했어.

4) 정재숙(2005:207)에서 ‘-었-’을 추론의 표지로 정의하고, ‘-더-’를 직접 증거성 표지로 분류함(정인아(2010:53)에서 재인용).

5) 송재목(2007:2)는 한국어의 증거성 표지를 직접지식(-더-, -네-), 간접지식(-겠-, 보고(-대))로 분류함(정인아(2010:52)에서 재인용).

- b. Il *doit* bien y avoir du pétrole là-bas(Dendale 1991:53).
 그곳에 석유가 진짜로 있는 모양이야.
- c. Ben Laden ne *serait* pas à Tora Bora où les combats se poursuivent [titre] (Le Monde 08-12-2001)(Kronning 2002:564).
 빈 라덴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토라보라에는 없을 것이다.

〈표 2〉 예문 (3)에 나타난 증거유형

문장	정보 획득의 경로	증거성 표지
(3a)	화자의 직접목적	voir de mes propres yeux
(3b)	화자의 추론	devoir
(3c)	화자의 추론	조건법 현재시제

앞서 언급했듯이, 위 예문 (3a)에서 프랑스어는 직접적 목적을 통한 정보의 획득은 문법적 표지가 아니라 지각동사 ‘voir de mes propres yeux, 내 눈으로 직접 보다’를 통해 어휘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예문 (3b)에서는 조동사의 기능을 함께 갖는 프랑스어 동사 ‘devoir(만드시~하다)’를 통해, 상대발화자는 화자가 발화한 정보는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추론의 방식에 의해 구성되었음을 표지한다. 또한 이러한 의미는 위 예문 (3c)의 조건법 현재시제인 ‘serait(être(있다))’가 사용된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포착된다(Dendale(1991:53)). 정보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위 문장 (3b)와 (3c)는 모두 그 정보의 출처가 화자의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며, 그 증거에 의해, 화자가 추론하는 사고과정을 거쳐 발화된 상황을 전하고 있음을 언어적 표지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한편, 다음 예문(4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의 출처가 ‘selon X’에 의해 드러난 경우에도 위 (3c)에서 살펴 본 추론적 의미는 나타난다. 이때, 예문(4a)에서 직설법 시제가 쓰인 문장(4b)와 비교해 구별되는 추가적 의미가 포착된다. 즉 (4a)의 조건법 시제 ‘aurait touché’는 화자가 전달하는 정보의 진위(眞僞)여부에 대한 거리감, 다시 말해, ‘책임회피(désengagement ou non prise en charge)’의 의미를 나타낸다. 반면에, (4b)의 직설법 시제 형태인 ‘a touché(avoir touché(공격하다))’는 정보의 진위에 대한 ‘확신 certitude’을 나타낸다(Dendale 1993:170).

- (4) a. Selon les Argentins, l'Exocet *aurait touché* l'“Invincible”, le dimanche 30 mai, au large des Malouines.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는, Exocet은 5월 30일 마루인 상공에서 Invincible을 공격한 것이겠지.
- b. Selon les Argentins, l'Exocet *a touché* l'“Invincible”, le dimanche 30 mai, au large des Malouines.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는, Exocet은 5월 30일 마루인 상공에서 Invincible을 공격했지.

정리하면, 화자는 예문(4a)에서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얻은 정보를 근거로, 발화된 상황이 실현가능성이 있음을 추론하고, 조건법을 사용하여 전달한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발화전략을 표현한다. 후술하겠지만, 여기서 포착된 책임회피라는 작용은 많은 증거성 표지가 쓰인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주요한 의미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증거성 범주의 연구는 범언어적으로 드러나는 증거성 범주의 분류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증거와 함께 언술에서 이 범주를 통해 발화자가 표상하고자 하는 담화 전략을 파악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Guentchéva(1996:11)는 위에서 살펴본 (2)와 (3)의 언어적 현상은 발화자가 상대발화자에게 자신의 (직)간접적인 경험에 의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보의 진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며, 따라서 증거성의 개념보다는 발화행위적 관점에서 ‘매개 작용⁶⁾’이라는 개념이 이 범주를 둘러싼 복잡한 의미-화용론적 현상을 더 명확히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언어현상은 화자가 자신이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얻은 정보를 통해 재구성한 추론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며, 이러한 담화적 상황이 화자가 관련 정보의 진위에 책임을 지지 않고, 상대발화자는 그 전달된 내용의 진위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일련의 담화 행위를 의미하는 언술 유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 Guentchéva(1996:11)는 이 복잡한 언어적 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좀 더 확장된 개념이 이 언어현상을

6) 이 용어는 Lazard (1956:149)에서 *tadjik* 언어를 소개할 때 처음 도입된 용어로 알려져 있다(Guentchéva 1996:11).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고는 그의 이론을 받아들여, 지금부터 매개작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한국어와 프랑스어의 증거성 범주의 문법 표지들을 이 개념 하에서 다음 표장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앞서, 본고는 분석·기술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아래에 소개한다.

2. 이론적 배경 : 가추법과 발화작용이론의 연술유형 구분

1) 가추법

매개작용의 가장 주요한 추론 방법(raisonnement d'inférence)인 가추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Desclés & Guentchéva(2010)는 다음과 같은 Peirce (1965)의 가설을 전제로 증거성 범주의 추론 방식을 가추법(abduction)으로 제안한다.

언어적 사실이란 실제 관측 가능한 언어 형식으로부터, 가추적 추론에 의해 연산작용을 재구성한다.

Desclés(2009)는 기존의 연역적 방식이 아니라 귀납적 방식의 추론적 사고로서 다음과 같이 Peirce(1965)의 정의를 인용한다.

Q ; or si P alors Q, donc P est plausible », Q étant un fait constaté et la relation « si P alors Q » exprimant un savoir (supposé) partagé. Un tel raisonnement se distingue de la déduction logique (modus ponens) : « Si P alors Q ; or P, donc Q (Desclés 1996 (Desclés 2009 재인용)).

결과 Q, 즉, 만약 P가 Q를 상정할 수 있으면, P는 실현가능하다. 이때, Q는 목격된 사실이라고 보고, <만약, P는 Q를 상정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은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원칙으로 정의한다. 이는 일반적 논리 추론 방식(modus ponens)과 구별된다.

위의 정의를 아래 <규칙 1>로 다시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알려진 결과(Q)와 원칙 (si P alors Q)으로부터 드러나 있지 않던 사례(P)를 추론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규칙 1> 가추법의 논리⁷⁾

알려진 결과 : 이 콩은 하얗다. (지각) : Q

원리 혹은 규칙 : 이 자루의 콩은 모두 하얗다. (지식) : si P alors Q

추론된 사례 : 그러므로 이 콩은 이 자루에서 나왔다 : 실현가능한 (plausible) P

다음 예문 (5(2b))의 상황을 다시 위의 <규칙 2>로 재구성해보면 아래와 같다.

(5(2b)) 비가 왔더라.

<규칙 2> : 예문 (5)의 적용

알려진 결과 : 땅이 젖어있다. (지각), (예문의 맥락 중 하나로 설정 가능함): Q

원리 혹은 규칙 : 비로 땅이 젖을 수 있다. (지식) : 비가 오면 P ⇒ 땅이 젖음 Q

추론된 사례 : 비가 왔던 상황이 매우 가능하다 : 비가 온 상황이 가능함, 실현가능한 P

가추법 추론 방식은 화자가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획득한 근거를 바탕으로 화자는 어떤 상황이 ‘실현가능성이 있음(probable)’을 도출해 내는 사고방식을 일컫는다. 위 예문(5)에서는 전혀 정보의 출처가 밝혀있지 않지만, 화자는 어떤 증거를 확인하고, 화자가 공유하고 있는 일반적 원리를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할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때, 추론된 정보의 진위에 대해 취하는 화자의 ‘거리감’은 상대발화자가 그 진위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한다. 이를 Desclés(2009:33)는 화자의 ‘책임회피’ 작용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의미를 위 예문(5)의 ‘-었더-’가 표지한다고 본다. 다음 대화를 상정해 보자. (5)’의 대화에서, 화자(A)는 자신의 직접적 경험을 근거로 재구성된 정보를 제공하고, 상대발화자(B)는 이 정보의 진위에 대해 반박하고, 협상하는(négocié) 일련의 담화행위를 수행한다.

7) 정경미(2016:65)에서 인용함.

이때, '-있더-'를 통해, 화자의 '책임회피'가 표지되며, 이는 -있-이 홀로 쓰인 (B)의 첫 번째 대화의 단언적 의미 값과 확연히 구분된다.

(5)' A: 비가 왔더라.

B: 그럴 리가 없어. 비는 오지 않았어.

A: 조금 전에 비에 땅이 젖어 있는 것을 봤어.

B: 그건, 내가 오전에 마당에 물을 뿌린 거야. 비가 온 것이 아니야.

A: 그랬구나.

더불어, 직접 목격한 사실을 전달하는 -더-의 경우에도, 발화행위의 순간이 아닌 과거에 직접 인지한 사실을 지금 상대발화자에게 다시 재구성해 추론해 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예문 (6)과 같이, 이러한 -더-의 의미는 한국어의 -는-이 가지는 '동시성'의 의미와 대조되어, 이전에 목격한 근거를 통한 추론과정으로 다시 설명될 수 있다⁸⁾. III장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기로 한다.

(6) a. 비가 오더라.

b. 비가 온다.

다음은 발화작용이론을 근거로 구분된 언술 유형을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 III장의 기술 분석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다.

2) 발화작용이론의 언술 유형 구분

사실상, 우리는 실제 세계가 아닌, 기호의 세계인 언어라는 프리즘에 통과된 세계를 표상한다. 따라서 논리학과 철학의 객관적 사실과 구별되는 철저히 발화자에게 의존적이며 상대적인 사실을 상대발화자에게 전한다(Dendale(1991:150)). 이는 '발화자의 책임짐(prise en charge)'이라는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Martin(1983:37))

8) 손호민(1975), 이효상(1991), 장경희(1983) 등에서 '-더-'와 '-는-'의 의미 차이는 시간성의 대립으로 분석된다.

Le propre de la vérité langagière - constatation banale mais qui n'est pas moins décisive- est une vérité prise en charge par un sujet. Un énoncé est vrai pour quelqu'un.

언어적 사실의 고유성이란 주어에 의한 책임져진 사실이라는 점이다, 즉, 한 언술은 특정인에게만 사실이라는 점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Desclés(2009)에서 발화행위이론(théorie de l'énonciation)의 가정 하에 아래 [공리 1]의 '발화책임작용(opération de la prise en charge)'을 포함하는 연산자 'JE-DIS'를 정하고, 다음과 같은 기본 발화공리를 정의한다.

[공리 1: 기본 발화공리]

$PROC_{J_0}$ (JE-DIS (« ce qui est dit »))

위의 [공리 1]에서, 'JE-DIS'는 발화책임작용의 연산자를 의미한다. 모든 언술은 발화자의 시공간 내에 위치하기에, 시상연산자 $PROC_{J_0}$ 를 통해, 발화자가 자신의 발화 공간 내에 언술을 유효화(validation)하고 있음, 즉 '사실임'을 표상한다(아래 [그림 2] 참조). 이러한 공간은 발화자의 주관적 공간인 'l'univers de croyance(Martin 1983)'로도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발화자의 발화공간과 그 정위관계를 통해 구체화 된다.

모든 언술은 발화자가 결정하는 시공간과 정위관계(relation de repérage)를 맺는다. 이러한 관계를 다음 [공리 2]를 사용해서 표상해 볼 수 있다.

[공리 2] JE-DIS (ce qui est dit (x))

$JE-DIS = S_0, S_{1,2,...,n} = X-DIT, « ce qui est dit »$ 의 주어들

즉, 발화 작용이란 발화자(S_0)와 관계를 맺는 다양한 담화 주체들의 관계 ('JE-DIS'와 'X-DIT') 그리고, 발화자의 시간 정보, 즉 언술의 순간(T_0)을 중심으로 위치되는 상황들 간에 이루어지는 언술의 생산적 행위를 의미한다(Desclés et Guentchéva 2000). 이러한 정위관계는 다음 세 개의 정위연산자 REP (일치 (=), 구별 (\neq), 단절 (#))의 연산작용을 통해 설명된다. 앞서, [공리 1]과 관련지어 [공리 3]의 정위작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공리 3] 정위작용

PROC₁₀ (JE-DIS (« ce qui est dit (X) ») & [X REP J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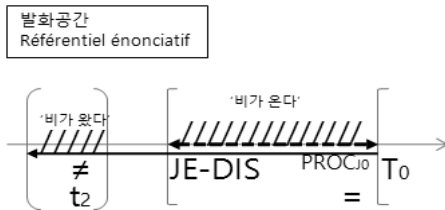
Je (발화자(énonciateur)) dis : X (실제 주어) dit : (ce qui est dit)

; X REP JE

<X = JE>, Je dis (ce qui est dit) [예문: 나는 걷는다]

<X ≠ JE>, Je dis: tu dis (ce qui est dit) [예문: tu dis : « 너는 걷는다 »]

<X # JE>, Je dis: il dit (ce qui est dit) [예문: il dit : « 그는 걷는다 »]



[그림 2] 발화공간과 유효화 개념

위 그림을 다시 살펴보면, 예문 (7a(6b))의 문장은 발화자가 자신이 현재 발화를 하고 있는 순간(T₀)인 발화사행구간(PROC₁₀)내에 사행(procès)인 ‘비가 온다’를 정위한다(‘=’로 표시). 마찬가지로, 과거시제형태소인 ‘-었’으로 표지된 (7b)의 문장은 다름(‘≠’로 표시)의 연산자로 정위된다. 이러한 정위작용을 통해, 발화책임작용은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7(6b)) a. 비가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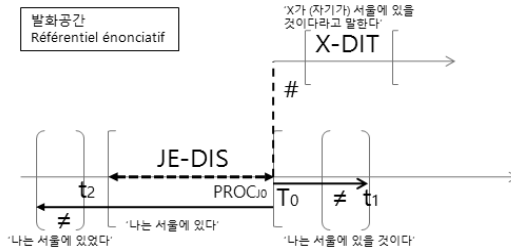
b. 비가 왔다.

(7)'a. <X = JE>, Je dis ((qu')il pleut) [예문: 비가 온다(il pleut)]

한편, 다음 [공리 4]에서와 같이, 전달담화의 경우는 실제 화자와 원발 화자(JE-DIS)의 발화책임작용의 작용역(portée)은 명확히 구별된다. 즉, 발화책임작용은 실제 화자(L)에 의한 작용이며, REP은 ‘단절’의 연산자(‘#’로 표시)를 통해 아래 [그림 3]과 같이 표상된다.

[공리 4: 전달담화문]

PROC₁₀ (JE-DIS (L-DIT (« ce qui est dit »)) & [L REP JE])



[그림 3] 발화공간과 기본발화공리

그렇다면, 아래 예문 (8(3c))의 경우에 드러나는 ‘책임회피’의 의미 값은 지금까지 살펴본 발화책임작용과 비교해 어떻게 표상해야 할지 살펴 보도록 한다.

(8(3c)) Ben Laden ne *serait* pas à Tora Bora où les combats se poursuivent [titre] (Le Monde 08-12-2001)(Kronning(2002:564)).
 빈 라덴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토라보라에는 없을 것이다.

앞서 II.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개작용의 의미를 갖는 예문들은 ‘직접목적’을 했건,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를 획득했던’ 간에 모두 확인된 증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상황을 전달하는 추론적 사고 과정의 결과라고 보았다(Desclés 2009:41). 이는 아래 [공리 5]에서와 같이, 가추법적 추론 연산자 ‘est-plausible par abduction(가추법적 추론을 통해 실현가능함)’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공리5]

PROC₀ (JE-DIS (est-plausible par abduction (« ce qui est dit »)))

위 예문(8)의 경우, 특정한 정보의 근원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공유된 맥락 내에서 추론이 가능한 상황을 재구성해 전달하는 것이며, 이러한 가추법의 추론 과정은 아래 <규칙 3>으로 다시 구성해 보면 아래와 같다.

<규칙3> :예문 (8)의 적용

알려진 결과: 명시되지 않은 근거 Q가 있다. (지각), (예문의 맥락 중 하나로 설정 가능함):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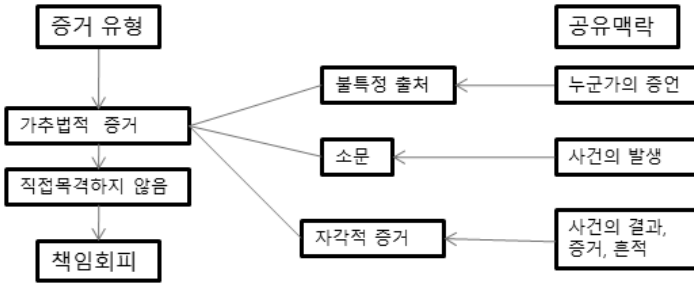
원리 혹은 규칙: 빈 라텐이 Tora Bora에 없으면, Q일 것이다 (지식):

$P \Rightarrow Q$

추론된 사례: P: 빈 라텐이 Tora Bora에 없을 가능성이 있다: plausible P

Dendales(1991)은 프랑스어 조건법 연구를 통해, 이 형태소의 의미 값은 양태적 의미보다는 ‘valeur d’emprunt(차용의 의미)’, 즉 ‘타인의 정보를 빌어옴’이라고 보았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앞서 살펴본 매개작용의 발화행위적 특징인 화자의 직접적 책임회피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가추법을 기반으로 하는 추론과정은 다음 [그림 4]의 ‘매개작용의 개념도’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림 4] 매개작용의 개념도(Desclés 2009:45)

위의 개념도에서 가추법적 증거의 유형들은 직접 목격한 정보, 불분명한 출처의 정보 혹은 소문 등이고,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화자는 정보들의 진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이때 추론의 바탕이 되는 원리(공유 맥락)는 누군가의 증언, 사건의 발생 자체, 아니면 사건의 결과 남겨진 흔적들이 증거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매개작용과 다르게, 발화자의 책임작용이 확연히 드러나는 발화행위가 있다. Culioli(1999:131)는 앞서 [공리 1]에서 살펴본 연산자 ‘JE-DIS’는 ‘*je dis qu’il est vrai*(사실이라고 말한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발화책임작용을 ‘소극적 발화책임작용(simple prise en charge)’이라고 명명하고, 단언문(assertion)의 발화책임작용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Desclés 2009:35). 다음 [공리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산자 ‘est-vrai’를 통해 앞서 살펴본 ‘발화책임작용’과 ‘사실임을 단언’하는 발화책임작용을 구분해 표상할 것을 제안한다 ([공리 6]). 이러한 예는 다음 (9)과 같다(Desclés 2009:35).

[공리 6]

PROC₁₀ (JE-DIS (est-vrai (« ce qui est dit »)))

(9) a. Il fait {*manifestement, vraiment*} beau aujourd’hui.

오늘은 명백히 날씨가 좋군.

b. *Je te l'affirme, je le sais*, Julie a été nommée à ce poste.

내가 확인하는데, 줄리는 그 자리에 취직되었을 거야.

위 (9)의 프랑스어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발화가 사실임을 단언하는 다양한 어휘적 표지들(*manifestement, vraiment, affirmer, savoir*)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언술유형(매개작용과 단언문)과 구분되는 양태 연산자의 발화작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아래 예문(10a)는 조건법 시제와 ‘selon X’가 함께 쓰인 전형적인 매개작용 구문이며, (10b)는 전달담화 구문이다. ‘selon X’가 이끄는 매개작용 구문은 인식양태부사 ‘peut-être’ 혹은 ‘probablement’와 공기할 수 없는데 비해, (10b)의 전달담화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 Kronning(2002:571)은 문장에서 인식양태부사에 의해 실현되는 의미 값과 매개작용을 이끄는 조건법 현재시제에 의해 드러나는 의미 값은 반드시 구별해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고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예문(10a)와 (10b)의 차이를 조건법 현재시제가 갖는 의미 값의 차이로 구분해 설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10a)의 조건법 현재시제는 ‘selon X’와 갖는 매개작용의 의미 값을 가지며, 이때 인식양태부사의 의미는 매개작용의 의미 값인 ‘실현가능함(probabilité)’과 그 의미가 중복되어 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반면에, (10b)의 조건법 현재시제는 전달담화 구문에서 주절문과의 시제일치를 보이는 전형적인 시제형태소의 의미 값을 가지며, 인식양태부사와의 공기도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아래 (10)'에서 두 문장의 의미를 구별해 표상해 보았다.

(10) a. ?* Selon Paul, Pierre serait peut-être (ou probablement) en retard.

폴에 따르면, 피에르는 아마도 늦을 거야.

b. Oui, mais il m'avait dit qu'il serait peut-être un peu en retard, mentit Adrien.

(Cohen 1968 :224)

네, 하지만 그가 내게 아마도 약간 늦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 같아요, 라고 아드리안이 거짓말했다.

(10)' a. PROC₁₀ (JE-DIS (est-plausible par abduction (« Pierre est *peut-être en retard »)))

b. PROC₁₀ (JE-DIS (IL-DIT (« je serai peut-être un peu en retard »)) & [IL REP JE])

위와 같은 언어적 현상에 대해, 학자들은 증거성의 의미보다는 해당 표지의 양태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거나⁹⁾ 해당표지들이 증거성 범주와 양태 범주의 의미를 동시에 나타낸다고 보았다¹⁰⁾. 하지만, Aikhenvald (2003)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¹¹⁾ 화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양태와 화자의 단언 대한 증거를 표상하는 매개작용은 구별된 범주로 간주해야 함을 주장한다. 본고도 같은 입장에서 양태범주의 의미는 추론적 사고과정을 표상하는 언술의 한 유형인 매개작용과 구별해서 다룰 것을 제안한다. 양태의 연산자가 술부관계에 양화적(quantification) 기능을 하는 관계는 다음 [공리 7]로 표상된다.

9) Martin(1983), Imbs(1968), Togeby(1982)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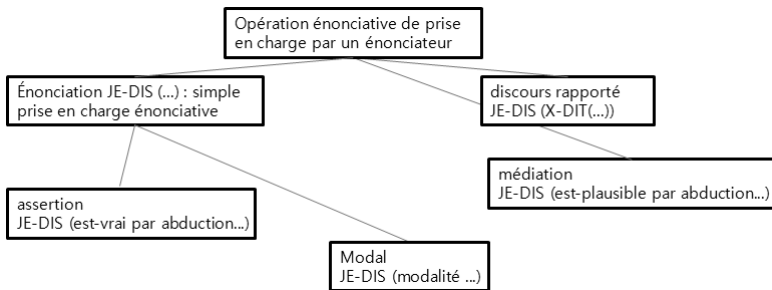
10) Kronning(2002, 2012).

11) Nuyts(2006:2), Jakobson(1986:3), Dendale(1991, 1993, 1994)

[공리 7]

PROC₁₀ (JE-DIS (opérateurs modaux (« ce qui est dit »)))

지금까지 살펴본 언술 유형을 발화책임작용을 중심으로 아래 [그림 5]와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언술 유형은 발화책임작용의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단언문, 매개문, 서술문, 전달 담화문으로 각각 구분되어 질 수 있다. 이때, 모든 언술문의 유형은 발화자가 자신의 발화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화됨을 본 단원에서 살펴보았다.



[그림 5] 발화책임작용과 다양한 언술유형의 개념도

다음 장에서는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증거성 표지 중 문법적 표지, -더-와 프랑스 조건법 시제의 발화개입양상을 위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기술해 보도록 한다. 우리는 여기서 매개작용의 가장 중심 의미 값인 ‘가추적’ 추론 방식에 의한 발화자의 ‘책임회피’ 작용을 예문을 통해 각 언어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III.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매개작용 표지 분석

1. 프랑스어의 매개작용 문법표지 : 조건법 현재시제

본고에서 아래 예문(11)-(14)에서 살펴보게 될 조건법의 의미는 일반적

으로 인식 및 진리양태의 의미를 가진다. Dendale(1993:165)은 조건법의 의미는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incertitude*), 다른 사람의 정보를 차용함, 정보의 진리 값에 대한 화자의 책임회피 이렇게 3가지 의미가 포착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 가치를 바탕으로, 아래의 프랑스어 조건법 현재시제의 용례는 매개작용 범주의 대표적인 예로 간주되고 있다(Kronning 2002).

(11(8)) Ben Laden ne serait pas à Tora Bora où les combats se poursuivent [titre] (Le Monde 08-12-2001)(Kronning 2002:564).

빈라덴은 전쟁이 계속되는 토라보라에는 없을 것이다

(12) La flotte britannique aurait quitté ce matin le port de Portsmouth.

영국 함대가 포츠머스 항구를 오늘 오전에 떠났을 것이다

위의 예문(11), (12)에서 화자는 정보의 출처는 밝히지 않아, 전달하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고, 그 진리 값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의미를 조건법 시제형태소, ‘*serait*(11)’, ‘*aurait quitté*(12)’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 값은 위의 용례들을 선행연구에서 인식양태의 한 예로 보게 되었던 이유이다. 다음 [공리 8]을 통해, 위의 예문들이 가진 ‘정보의 실제 발화자’ 즉 ‘출처’가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의 언술행위를 표상하면 다음과 같다.

[공리 8: ‘발화책임작용’의 주체가 드러나 있지 않음]

a. DIS (DIT (ce qui est dit) il existe un énonciateur indéterminé) JE
<énonciateur indéterminé ≠ JE> ou <énonciateur indéterminé # JE>

위 공리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발화자가 있으며(<énonciateur indéterminé ≠ JE> ou <énonciateur indéterminé # JE>), 이를 발화체의 기본발화공리([공리 1])의 핵심인 실제 발화책임작용의 연산자 ‘JE-DIS’의 연산자 ‘JE’에 의해 각각 ‘다름(≠)’과 ‘단절(#)’의 연산자로 정위된다.

한편, 다음 예문(13)와 (14)에서와 같이, 정보의 출처가 정확히 명시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의 의미 값도 정보의 출처는 확실하나, 그 정보의 진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가 조건법 시제형태소를 통해 표

상되고 있다.

(13) (D'après la radio), le président du conseil constitutionnel serait coupable.

라디오(의 보도)에 따르면, 헌재위원회의 회장은 유죄겠지.

(14(4a)) Selon les Argentins, l'Exocet aurait touché l'“Invincible”, le dimanche 30 mai, au large des Malouines.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Exocet은 5월 30일 마루인 상공에서 Invincible을 공격한 것이겠지.

정보의 출처는 ‘d’après’와 ‘selon’에 의해 소개되고 있으며, 결국 이 정보가 화자의 고유한 경험이 아니므로, 그 진위에 대한 불확실함을 조건법 시제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건법의 의미는 다음 예문 (15)과 (16)의 동일한 구조의 문장에서, 직설법 시제가 사용된 예문의 의미 값의 차이에서 확인될 수 있다.

(15(4b)) Selon les Argentins, l'Exocet a touché l'“Invincible”, le dimanche 30 mai, au large des Malouines.

아르헨티나 (입장)에 따르면. Exocet은 5월 30일 마루인 상공에서 Invincible을 공격했지.

(16) Le commentateur politique a déclaré que le président du conseil constitutionnel était coupable.

정당대변인은 헌재위원회의장이 유죄라고 발표했다.

위 예문 (13)와 (14)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공리 8]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Dendale 1993:173)은 앞서 살펴본 조건법 용례들에서 공통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의미는 증거성의 범주로 ‘차용의 의미 값’ 즉, ‘다른 사람의 정보를 빌려 옴’의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앞서 Desclés(2009)가 제안한 매개작용의 [공리 5]를 적용해 본다. 위 예문들에서 포착되는 발화 작용은 매개작용으로 화자는 타인의 정보를 근거로, ‘실현가능한 상황(situation plausible)’을 추론하는 사고과정을 조건법 시제를 통해 표상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이러한 언술 행위

의 발화 공리는 다음과 같다.

[공리 9: 가추법 추론에 의한 매개작용]

a. JE-DIS (plausible par abduction (ce qui est dit))

: Je dis que ce qui est dit est construit est plausible par abduction
(à partir des indices, souvent perceptifs mais aussi parfois cognitifs).

나는 가추적 추론에 의해 재구성한 사실을 말한다 (이러한 추론은 직접 지각한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짐)

다음은 한국어의 회상시제 -더-의 증거성 범주의 의미 값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미 앞서 II.1.장에서 밝힌바와 같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전달하는 대표적인 한국어의 증거성 표지로 알려진 -더-를 매개작용의 관점에서 다시 고찰해보고자 한다. 한국어의 증거성 체계 내에서 이 표지의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어의 매개작용 문법 표지 : '-더-'

우선,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자.

(17)¹² 애들이 아현 거기쯤에 내리더라, 학생들이 그쪽 학교 있지?

(18)¹³ a. 들어가 보니 아이들이 점심을 먹더라.

b. 들어가 보니 아이들이 점심을 다 먹었더라.

예문(18a)는 '아이들이 점심을 먹는 장면'을, (18b)는 '아이들이 점심을 다 먹은 후의 장면('먹었다'고 기술할 수 있는 장면)'을 화자가 본 것임을 '-더-'가 나타내고 있다. '-더-'는 화자가 무엇인가를 지각한 증거가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이므로 위 예문(17)과 (18)의 경우, 모두 화자의 직접적 지각을 바탕으로 구성된 발화이다. 또한 정인아(2010:52)는 다음 예문들

12) 정인아(2010:51).

13) *ibid.*

을 들어, -더-는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미각, 촉각 등의 직접적인 지각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음을 주장했다.

- (19) 만져보니 딱딱하더라.
- (20) 들어보니 가방이 무겁더라.
- (21) 나는 아무 맛도 없던데, 곤약? 난 그게 맛있던데?
- (22) 거기 서 있을 때는, 근데 난 들리더라, 왜 안 들려.

위와 같은, -더-의 의미로 인해, 선행이론은 이 표지를 ‘과거지각’을 나타내는 표지로 보고, -느-를 ‘현재지각’을 나타내는 표지로 보았다.

- (23(6)) a. 비가 오더라.
- b. 비가 온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 지각’의 의미 값을 가진 이 표지가 다음 예문(24)의 역사적 사실 상황을 기술하는 문장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더욱더 ‘과거지각’의 의미 값에 대한 주장을 지지해 준다. 따라서 예문(25)의 경우에, 실제 서사자의 경험을 전달하는 경험문학의 서사 방식을 가진 성경에서는 반대로 이 표지를 자주 발견 할 수 있다.

- (24) ? 층무공은 한산섬에서 진을 치더라.
- (25)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4절).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더-의 언술에서 포착된 의미는 기존 선행이론의 ‘과거 지각’의 의미로서, 화자의 ‘직접적인 과거 지각을 전달하는 것’이다.

한편, 다음 예문(26)-(27)은 앞서 예문들이 발화자의 직접 지각을 바탕으로 하는 것과 다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 남겨진 상태를 직접 지각한 후 발화자가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재구성하여 발화하는 상황에서 쓰인 -더-를 보여준다.

- (26) 비가 많이 왔더라 (땅이 젖어 있다).
- (27) 영수 도착했더라 (영수의 외투가 옷걸이에 걸려있다).

예를 들어, 예문 (26)의 경우는 ‘비가 온 뒤 땅이 젖어 있음’을 보고 발화자가 ‘비가 왔음’을 확인하는 경우이고, 마찬가지로 예문 (27)의 경우도, ‘영수의 외투가 옷걸이에 걸려있음’을 지각하고 ‘영수의 도착’을 확신하는 언술이다. 이와 같은 언술은 가추법 추론(raisonnement abductif)에 의한 매개작용의 언술 행위이며, 발화자는 -더-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추론의 증거로서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에 바탕이 되었음으로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발화자의 태도는 다음 예문 (28)의 경우처럼, 간접 증거표지로 간주되는 -겠-과 함께 사용되어, 발화자가 자신의 언술에 대한 책임 회피를 추가적으로 드러낸다. 이때의 경우도 -더-는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근거를 제시함’의 증거성 의미는 포착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값에 대하여, 이상국(1993)은 ‘-더-’를 “화자가 직접 보거나 본 것을 근거로 관찰과 추론(observation and deduction)에 의한 의견을 말하는 데 사용하는 ‘직접 증거(First-Hand Evidence)’의 증거 표지”로 논하고 있다. 즉 화자는 정보의 근거가 ‘자신 고유의 경험’이며, 자신이 직접 지각한 외부적인 증거를 근거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그 사건이 사실임을 책임지는 언술 행위를 보인다.

(28) 비가 많이 왔겠더라 (물이 불어난 한강을 보며).

앞서 살펴본 -더-의 매개작용은 다음 예문 (29)의 전달담화에서도 나타난다. 이때, ‘비가 옴’을 확인한 것은 발화자가 아니라 제 3자이며, 이러한 경우에 발화자는 -더-를 사용하여, 발화자는 실제 화자의 발화를 직접 확인하고 그대로 전달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29) 비가 많이 왔다더라.

지금까지 살펴본 -더-는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근거를 제시함’, 즉 발화순간에 일어나는 직접적 증거가 아니라 ‘과거의 지각’을 제시하는 증거를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과거 지각의 경험은 반드시 화자 자신의 경험에 국한된다. 따라서 -더-는 아래의 구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의 경험적 증거인 동시에 간접증거(시간상의 개념에서)의 의미를 내포하는

언어적 기호이며, 이를 통해 매개작용([공리 10(9)])을 이끄는 연산자로서 언어에서 기능을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표 3〉 증거성 의미 값의 구분 (Plungian 2001:353)

직접증거	간접증거	
	추론 혹은 추정에 의한 증거	전달된 증거
개인의 경험적 증거		

[공리 10(9): 가추법 추론에 의한 매개작용]

a. DIS (plausible par abduction (ce qui est dit)) JE

: Je dis que ce qui est dit est construit est plausible par abduction

(à partir des indices, souvent perceptifs mais aussi parfois cognitifs).

나는 가추적 추론에 의해 재구성한 사실을 말한다 (이러한 추론은 직접 자각한 증거를 통해서 흔히 이루어짐)

지금까지 본고는 프랑스어 조건법 현재시제와 한국어 회상시제 -더-가 표지하는 매개작용을 살펴보았다. 양 언어 간에 포착된 매개작용을 발화작용이론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가추법 추론방식의 언술유형으로 다시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증거성 범주 연구가 제시한 증거 유형 분류가 아닌, 화자의 발화행위적 관점을 중심으로, 각 문법적 표지를 통해 의미 값을 각각 매개작용이라는 화자의 담화전략으로 정의하고, 그 발화적 기능을 중심으로 재조명해보았다.

IV.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발화작용이론의 관점에서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증거성 문법 표지, -더-와 ‘조건법 시제’의 의미-화용론적 가치를 분석·기술하였다. 객관적 분석 기제를 이용해 언어마다 다양하게 발현되는 증거성 범주의 개별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본고는 증거성 범주의 보편적 특성과 의미 값을 포착 하고자 했다. 발화작용이론의 기본적 가정을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로 삼고, 한국어와 프랑스어의 언어적 표지가 가지는 고유한 증거성 범주의 위상을 설명해내고, 규명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본고는 맥락이나 언술의 어휘적 가치와 독립된 증거성 문법 표지의 안정적 의미를 도출해내고자 했다.

우리는 증거성 범주의 매개작용이란 발화자가 상대발화자와 가지는 담화적 전략의 한 유형으로, 발화자는 자신이 진술하는 '정보의 근거'를 밝히고, 이를 근거로 추론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정했다. 이러한 담화적 특성은 단언문이나 일반적인 서술문에서 포착되는 발화책임작용과 상반되는 발화자의 책임회피작용을 통해 뚜렷이 구별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개별적 언어의 현상을 분석, 기술함으로써 본고는 증거성 범주의 범언어학적 의미를 '가추법적 추론 과정에 의한 책임회피 작용'으로 정의하고 증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본고는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대표적 증거성 문법 표지인 회상시제 '-더-'와 '조건법 시제 형태소가 가지는 증거성 범주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였다. 또한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언어 현상을 객관적인 분석 기제를 통해 기술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는 증거성 범주의 일반 언어학적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응용언어학 연구에 언어학적 토대연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 언어의 증거성 체계를 파악하는 연구로 발전되어, 전혀 다른 언어 집단에 속해 있는 두 언어, 프랑스어와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증거성 범주의 양상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일반 언어학적 연구로 그 일차적인 확장이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김남길, 「Hearsay Evidential in Korean」, 한국어의 인용증거문, 『이중언어학 7-1』, 이중언어학회, 1990, 418-434쪽.
- 서정연, 「인지연산문법의 틀 안에서 살펴본 한국어 형태소 -더-의 의미 연구」, 『프랑스어문교육』 제34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10, 157-182쪽.
- 서태룡, 『국어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학위 논문, 1987.
- 손호민, 「A typological analysis of the Korean evidential marker -te-」, 『언어학 32』, 한국언어학회, 2002, pp. 147-164.
- _____, 「Retrospection in Korean」, 『어학연구11-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75.
- 이상국, 「TE as Evidentials」, 『영어영문학연구 15』,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회, 1993, 72-109쪽.
- 이효상, 『Tense, aspect and modality : a discours-pragmatic Analysis of verbal affixes in Korean from a Typological perspectiv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1991.
- 장경희, 「-더-의 의미와 그 용법」, 『언어 8-2』, 한국언어학회, 1983, 293-313쪽.
- 정경미, 『한국어 추론 증거성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학위논문(박사), 2016.
- 정인아, 『한국어의 증거성(Evidentiality) 범주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학위논문(박사), 2010.
- Aikhenvald, A-Y., « Evidentiality in Typological Perspective », In Aikhenvald, A.Y.& Dixon, R. M. W. eds. *Studies in Evidentiality*, John Benjamins. 2003, pp. 1-32.
- Bally, Ch., *Linguistique générale et linguistique française*, 4ème édition revue et corrigée, Berne, Francke, éd.1965.
- Benveniste, E.,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Tome 2, Paris, Gallimard

1956, éd. 1974.

- Boas, Franz., « Kwakiutl grammar, with a glossary of the suffixes »,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37 (3), 1947, pp. 201-377.
- Bybee, J. L., *Modality in Grammar and Discourse*. John Benjamins, 1995.
- Chafe, W., & NICHOLS, J., *Evidentiality: the linguistic coding of epistemology*. Norwood. N.J.: Ablex Pub. Corp.1986.
- Culioli, A., « Sur quelques contradictions en linguistique », *Communications* 20, *Le sociologique et la linguistique*, 1973, pp. 83-91.
- Delancey, S., « The Mirative and Evidentiality », *Journal of Pragmatics* 33. 2001, pp.369-382.
- Dendale, P., *Le marquage épistémique de l'énoncé. Esquisse d'une théorie avec applications au français*, thèse de doctorat, Anvers, Université d'Anvers, 1991.
- _____, « Le conditionnel de l'information incertaine : marqueur modal ou marqueur évidentiel ? », in Hilty G. (ed.), *Actes du XXe Congrès International de Linguistique et Philologie Romanes*, Université de Zurich, Tübingen, Francke Verlag, 1993.
- _____, « Devoir épistémique, marqueur modal ou évidentiel ? », *Langue française*, n°102, 1994. Les sources du savoir et leurs marques linguistiques. pp. 24-40.
- Dendale, P. & Coltier, D., « Point de vue et évidentialité », *Cahiers de praxématique* 2003, pp. 105-130
- Dendale, P. & Tasmowski, L., Présentation. « L'évidentialité ou le marquage des sources du savoir », *Langue française*, n°102, 1994, pp. 3-7.
- Descles, J-P., « Prise en charge, engagement et désengagement », *Langue française* 2009/2 (n° 162), p. 29-53.
- _____, « La notion d'abduction et le verbe devoir "épistémique" », in Dendale, P. & Van der Auwera, J. (éds), *Les verbes modaux, Amsterdam / Atlanta, Rodopi (Cahiers Chronos 8)*, 2010, pp. 103-122.

- Descles, J.-P. et Guentcheva, Z., « Enonciateur, locuteur, médiateur », dans A. Monod Becquelin et P. Erikson (dir.), *Les rituels du dialogue*, Nanterre, Société d'ethnologie, pp.79-112, 2002.
- Givon, T., « Evidentiality and epistemic space », *Studies in language*, 6.1, 1982, pp. 23-49.
- Guentcheva, Z., *Enonciation médiatisée*, éd. par Z. Guentchéva, édition Peeters, Louvain-Paris, 1996.
- Jakobson, R. « Franz Boas' Approach to Language », *International Journal of American Linguistics* 10. 1944, pp. 188-195, (Reprinted in Jakobson.1971, pp. 477-488).
- Imbs, P., *L'emploi des temps verbaux en français moderne. Essai de grammaire descriptive*, Paris, Klincksieck, 1968.
- Kronning, H., « Le conditionnel 'journalistique' : médiation et modalisation épistémiques », *Romansk forum* 16 (2), 2002, pp. 561-575.
- _____, « Le conditionnel épistémique : propriétés et fonctions discursives », *Langue française* 2012/1 (n°173), p. 83-97.
- Lazard, G., « Mirativity, evidentiality, mediativity, or other? », *Linguistic typology*, 3.1, 1991, pp. 91-109.
- Martin, R., *Pour une logique du sens*, Paris, PUF, 1983.
- Nuyts, J., « The Modal Confusion : on terminology and the concepts behind it », in *Modality : studies in form and function*, London, Equinox, 2005, pp.5-38.
- Plungian, V., « The place of evidentiality within the universal grammatical space », *Journal of pragmatics*, 33.3, 2001, pp. 349-357.
- Saeed, *Semantics*, Wiley-Blackwell, 2008.
- Togoby, K., *Grammaire française*, Copenhague, Akademisk Forlag, 1982.
- Van der Auwera, J., & PLUNGIAN, V., « Modality's semantic map », *Linguistic Typology*, n°2, Berlin/New-York, Mouton de Gruyter, 1998, pp.79-124
- Willet, T., « A Cross-Linguistic Survey of the Grammaticization of Evidentiality », *Studies in Language* 12-1., 1988, pp. 51-97.

❖ ABSTRACT

Reconsideration of the Linguistic Category of
Mediation in Language:
a Comparative Approach between French and Korean

Suh, Jungyeon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reconsider the evidential category (or the mediation category) in languages with language specific values, especially in Korean and French evidentials. We tried to analyze how the evidentials are represented in both languages including their linguistic markers (grammatical, lexical or discursive) and their semantic meanings. According to the precedent studies from the general linguistic point of view, we would like to reconsider the semantic meanings of both languages' grammatical markers, the so-called Korean retrospective marker '-te-' and French conditionals in the framework of the enunciative operation theory suggested by Desclés & Guentchéva (2000), which proposed to classify the type of discourse by the language-independent description tools conceived after the enunciation theory suggested by Bally (1965), Benveniste (1956), Culioli (1973). Through this approach, we would like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the linguistic basis not only for the general linguistic research to determine the invariant meaning of linguistic evidentials and their system, but also for the applied linguistics to the language engineering field.

Key Words : evidential category, evidential modal, inference operation, abduction theory, Korean retrospective marker -te-, epistemic modality, the enunciation theory, the enunciative operation theory, aspecto-temporal category, speaker' responsible operation

■ 논문접수일 : 2017. 02. 10

■ 심사완료일 : 2017. 03. 01

■ 게재확정일 : 2017. 03. 03

